

# 중국에서의 ‘아시아주의(亞洲主義)’의 쇠퇴 및 결과

— 신해혁명부터 ‘5.4’시기까지의  
담론을 중심으로

“亚洲主义”思潮在中国的消退及其后果  
— 以辛亥革命到“五四”时期为讨论中心

저자 | 조우징화 (赵京华)

번역 | 김은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이 논문 번역은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중국에서의 ‘아시아주의(亞洲主義)’의 쇠퇴 및 결과  
—신해혁명부터 ‘5.4’시기까지의 담론을 중심으로1)  
 (“亚洲主义”思潮在中国的消退及其后果  
—以辛亥革命到“五四”时期为讨论中心)

쑤우징화(赵京华)

\*번역: 김은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들어가며

중국인들이 지역주의에 대한 사유는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편이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지역 협력에 관한 사상자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이나 1980년대 이래의 한국과 견주어볼 때, 중국인들이 ‘아시아주의’ 또는 ‘동아시아 인식’은 비교적 열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역사적·현실적 원인들이 내재한다. 다만 필자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백여 년 전에 있었던 신해혁명으로부터 5.4운동에 이르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대아시아주의(大亞細亞主義)’를 둘러싼 열기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것은 전반 중국의 근현대사상사에서 놓고 보았을 때 미약한 흐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또한 그 자체로서 체계화된 관념이나 이론을 형성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폭발 이후 세계의 정치적 질서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은 ‘아시아주의’의 주발원지였던 일본과의 교류를 도모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격렬하게 길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의미 있는 담론들을 양산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것들

1) 이 논문은 20016년 5월 『학술월간(學術月刊)』에 처음 실릴 당시에는 「청말(清末)부터 ‘5.4’시기까지: 중국에서의 ‘아시아주의’의 쇠퇴 및 결과(从晚晴到五四: 亚洲主义在中国的消退及其后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지만, 이후 단행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사상: 동아시아 동시대사의 시각을 중심으로(中日间的思想: 以东亚同时代史为视角)』 (北京: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2019.7.) 에 수록될 때에는 「중국에서의 ‘아시아주의’의 쇠퇴 및 결과: 신해혁명부터 ‘5.4’시기까지의 담론을 중심으로(「亚洲主义」思潮在中国的消退及其后果: 以辛亥革命到“五四”时期为讨论中心)」라는 제목으로 수정되었다. 이 번역문에서는 단행본에 수록된 글을 기준으로 삼았다.

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의 ‘아시아주의’의 논리 구조와 정치적 가치지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국이 지역협력에 관한 관념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끔 할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 오늘날 새로운 지역주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사유함에 있어서 참조점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해혁명부터 ‘5.4’운동 시기에 열띤 ‘대아시아주의’에 대한 토론은 대체로 1916년부터 1919년 사이 전국적 규모의 매체였던 잡지 『동방(東方)』을 중심으로 벌어졌으며 이밖에 『국민(國民)』과 같은 신문매체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이후 담론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던 『신청년(新靑年)』은 관련 문장을 직접 실은 바는 없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명충돌론, 세계지역화 추세와 먼로주의(Monroe Doctrine)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드러냈으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단연히 리따자오(李大钊)를 꼽을 수 있다. 그러한 논의들은 제1차 세계 대전이 적극 참여했던 일본에서 1916년 전후를 즈음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대아시아주의’ 담론에서 촉발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국제관계에서의 기존의 세력균형론에 근거하여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력범위를 확장하고 식민성을 띤 ‘대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여론 기초를 확립하는 것에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시 약세에 처해있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협과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또한 이로 인해 중국 지식계에서 주목하는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결속과 함께 세계 구도는 재편성을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에 사람들은 자국과 지역,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리따자오를 대표로 하는 식민지 해방, 민족자결과 세계주의를 목표로 하는 ‘신아시아주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 논의는 중국 근현대사상사에서 더없이 특수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후세대가 지역협력의 문제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참조틀이 될 만한 사상적 자원을 남겨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청말(淸末) 이래 중국에서 축적되어온 아시아주의 또는 동아시아 의식에 관한 사상적 계보와 함께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차 세계대전이 바야흐로 막을 내리고 세계혁명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중국 사회가 준엄한 전환기에 직면했던 역사적 시점, 특히 5.4 운동을 전후하여 나타났던 ‘대아시아주의’ 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 해당 담론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이후 동아시아 의식이 쇠퇴에 이르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의 사유방식과 학술사상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었는가? 이 글에서 필자는 청말 이래 중국인들의 아시아 의식의 발전과정과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전 지구적 위기 및 지역 연맹이라는 새로운 추세, 민족자결과 세계혁명 이념의 교차적인 출현, 그리고 중국 혁명과 제국화 되어간 일본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착수하여 지식고고학의 방식을 운용하여 지나간 역사를 밝히고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하고 아울러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의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해보고자 한다.

한편 필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학술적 고려도 있다. 주지하듯이 애초에 근대 일본 저층민간에서 발원했던 ‘정서’로서의 아시아주의는 점차적으로 제국주의의 국가 ‘전략’으로 전변되어 갔으며, 그것이 주변 국가와 지역의 민족들 내지 전 세계에 재난을 가져다 준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주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여러 세대의 지식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렵게 반성하고 비판적인 통찰을 해온 바 있다. 물론 개중에는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

는 경향도 없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대저 일본 지식인들이 지난 6, 70년대 얻어난 성찰은 동양과 서구의 이원대립의 냉전구조를 타파하고 협력, 공생하는 새로운 아시아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전(戰前)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이용되고 심각하게 왜곡된 낡은 아시아주의 사상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이는 당시 일본 이외의 국가와 지역의 학술사상계에서 주목 받지 못했다. 사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아시아주의, 특히 나중에 악명 높아진 ‘대동아공영권’의 최대의 기만성은 그것이 아시아의 해방을 공언하였다는 것이나, 문제는 ‘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해방’ 주장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일본제국이 그 당시 ‘해방’하고자 했던 아시아 국가 ‘중국’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중국인들이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수용하지 않았던 현실적 이유와 역사적 논리를 밝힐 수 있다면 일본 아시아주의의 실패의 교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로부터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지역협력의 아시아관을 정립하기 위한 튼실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19세기 지역주의의 흐름과 일본의 아시아주의

금융자본의 전 지구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민족국가가 흥기하고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19세기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는 상호 길항하는 ‘범……주의’가 유행처럼 번졌는데, 범슬라브주의(Pan-Slavism), 범아메리카주의(Pan-Americanism),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범유럽주의(Pan-European doctrine)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의 구조적 특징의 하나는 약자의 지위에 처해 있었던 민족과 집단(人羣)이 그들의 공통의 역사문화 및 언어에 기초해 연합하여 외부 세력의 압박에 대한 저항을 도모함으로써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민족과 지역 연대의 해방운동으로 발전되어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사회에서 발원한 운동은 후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강대한 민족 또는 국가(제국주의)에 의해 지역 내 패권과 세력 범위의 확장에 이용되었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약소한 저항으로부터 약소 세력을 압박하는 강권으로의 관계 전환이 존재하며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제국주의의 정복과 피정복의 구조의 전도를 내포한다. 이는 ‘범……주의’가 나중에는 ‘대……주의’로 불리게 되었던 명칭의 변화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다. 이에 제1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1918년 리따자오는 “각각의 ‘대아시아주의’는 비록 범위의 크기와 성격에 있어서 상이하지만 그것들이 가지는 전제(專制)의 성격, 즉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코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곧 전제와 강권의 다른 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2)</sup>

범아시아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은 비교적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시아가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 확장의 맨 마지막 단계에 처해있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1840년 중국에서 아편전쟁이 발생한 이후 1854년 미국 페리(Perry) 장군이 일본에 ‘흑선내항(黑船內航)’한 사건을 기점으로 동아시아는 서구를 향해 문호를 개방했다. 한편 제정 러시아는 ‘부동항해출구(不凍航海出口)’를 찾아 지속적으로 동남쪽으로 확장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세의 긴장과 세력 쟁탈을 초래했다. 이 지역에서 강자였던 중화제국은 장기간 지역과 세계

2) 리따자오(李大钊), 「Pan……ism의 실패와 Democracy의 승리(Pan……ism之失敗與Democracy之勝利)」, 『太平洋』 제1권 제10호, 1918.7.15.

의 중심부를 차지했던 연유 때문인지 아니면 국력이 쇠약하고 각성이 늦었던 탓인지 애초부터 주변의 약소 세력들과 연합하고 지역 연맹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시아 의식이 부족했다. 이에 범아시아주의는 메이지유신 성공 이후의 일본에서 나타났고 그것의 성행은 갑오 중일전쟁, 러일전쟁 승리에까지 이어졌다.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막부(幕府)와 메이지유신 초반 일본 민간에서 나타난 아시아 연대의식이 당시에는 ‘범아시아주의’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대아시아주의’라는 명칭으로 대신하게 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아시아주의’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아시아에 대한 구미열강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아시아 제민족이 일본을 맹주로 단결하자는 주장. 아시아연대론 자체는 일본의 독립과도 관련되어 메이지초년부터 주창되어왔다. 특히 자유민권론자의 주장은 각지각색의 차이를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 이윽고 메이지 20년대에 들어서면 자유민권운동의 퇴조, 천황제국가기구의 확립, 대청(對淸) 군비확충에 따라 이들 민권론자의 아시아 연대론 속에서 대아시아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 그 후 대아시아주의는 천황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우익단체의 주요한 표어로 채택되어 만주와 몽골을 탈취하려는 기도(企圖)에 봉사했다.<sup>3)</sup>

아시아주의는 미국의 먼로주의와 마찬가지로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이고 동양의 사무는 동양인이 처리한다”는 것을 기본 요지로 한다. 따라서 아시아주의는 상황에 따라서는 아시아 먼로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혹자가 지적한 바 있듯이, 아시아주의가 일본에서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왔다. 첫째, 1870~80년대 아시아연대론으로서의 범아시아주의는 민간에서 나타났으며, 그중에는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의 “대동합방론”과 같이 소박하게 아시아를 연합하는 것에서 대동(大同)으로 나아간 아시아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일본맹주론”이나 구가 가츠난(陸翔南)의 “지나보존론”과 같은 아시아주의도 있었다. 둘째, 1895년부터 1920년대에 이르러 기존의 범아시아주의는 ‘대아시아주의’로 전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의화단사건이 발생한 전후로 일본에서는 다양한 ‘지나보존론(支那保全論)’이 나타났으며 민간의 아시아 연대 정서 또한 국가가 추진하고 확장했던 ‘대륙정책’ 속으로 흡수되어 갔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의 일본은 아시아에 대해 ‘해방’ 또는 ‘침략’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다가 종국적으로는 후자를 택하게 된다. 1924년 미국에서 배일이민법안(排日移民法案)을 실시하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반서구의 목소리가 높아져갔고 대아시아주의가 성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셋째, ‘9.18’사변이 발생 직후인 1933년, 고노에 후미마로(近卫文麿), 히로타 고키(广田弘毅) 등이 조직한 ‘대아시아협회(大亚细亚协会)’는 일본제국의 대외침략 ‘익찬체제(翼賛体系)’의 하나로 되었으며 아시아에 관한 담론의 중심 또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문명충돌론과 문화연대론으로부터 국제관계 내지 세계질서 재편성이라는 정치적 측면으로 향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아시아주의 사조의 전변 과정에 있어서 갑오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에 나타났던 ‘지나보존론’은 근대 일본의 대아시아주의가 질적인 성격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동시에 그것은 아시아주의에서 ‘대륙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었다.<sup>4)</sup>

3) 中下邦彦 編, 『亚细亚事典』, 东京: 平凡社, 1959-1962. p.6.; 다케우치 요시미, 마루카와 데쓰시, 스즈키 마사히사 편, 윤여일 역, 「일본의 아시아주의」,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2: 내재하는 아시아』, 295-297면. 참조.

요컨대, 민간에서 기원한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국가에 차용되어 지역 쟁탈 및 세계 패권의 사상적 담론으로 전변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정말 이래 일부 중국의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은 아시아주의의 콤플렉스 또는 동아시아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발생과 발전에서부터 쇠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처음으로 ‘아시아주의’의 의제를 제기했던 다케우치 요시미는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그 기본특징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그것은 어떤 실질적 내용을 품은, 객관적으로 한정 가능한 사상이 아니라 일종의 경향성이라 할 만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아시아주의는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파시즘처럼 요컨대 공인된 사상과는 달라서 그 자체가 가치를 품고 있지는 않으니 완전히 자족하거나 자립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다른 사상에 기대어 등장한다. 따라서 아시아주의 자체의 역사적 전개를 더듬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up>5)</sup> 다케우치 요시미의 지적은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그 자체로서 원리성(原理性)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아시아주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연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이러한 주의(主義) 및 그것에 영향 받아 촉발된 중국인들의 아시아 의식에 대해서 고찰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당시의 변화무쌍한 국제적 관계와 기타 사상 이데올로기와의 연관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주의의 발전과 쇠퇴의 궤적을 파악해야 함을 제시해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시아주의에 대해서 정의하기 어려운 사정은 그것이 역사 속에서의 논리 전개의 과정에 대해서 쉽게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고찰함에 있어서 겹겹의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아시아주의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그것이 지닌 사상의 구성요소와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메이지유신 이래의 아시아주의를 ‘문화적 아시아주의’와 ‘정치적 아시아주의’의 두 유형으로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적 아시아주의’란 19세기 이래 문명론, 인종론, 문화전파론 등과 연관되어 어떤 민족과 지역의 역사, 문화, 언어 등 면에서의 공통점을 기초로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연대와 연맹을 추구하는 것인데, 초기의 범슬라브주의가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에서 이 유형은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을 대표로 한다. 한편 ‘정치적 문화주의’는 19세기 말엽 나타난 지역주의와 정치, 외교상의 각종 ‘먼로주의’를 포함하여 유럽에서 기원한 세력균형론(均勢論)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것은 하나의 패권중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맹주(盟主)로 초국가적 지역의 확장을 실현하는데 실제로 한 제국의 지역패권주의로 되어버리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만약 ‘문화적 아시아주의’가 소박한 민족주의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정치적 아시아주의’는 지역연합을 기초로 하는 하나의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키타 잇키(北一輝),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로우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등을 대표로 한다. 물론 이것은 그저 범박한 구분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상황은 보다 복잡하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문화와 정치적 요소는 서로 얽혀있는 것이다.

4) 王屏,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近代日本の亞細亞主義)』, 北京: 商務印書館, 2004. p.333-337

5) 竹内好, 「日本の亞洲主義」, 『日本與亞洲』, 東京: 築摩書房, 1963. p.293-294; 다케우치 요시미, 마루카와 데쓰시, 스즈키 마사히사 편, 윤여일 역, 「일본의 아시아주의」,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2: 내재하는 아시아』, 290-301면. 참조.

## 2. 청말(清末)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중국인들의 아시아 의식

주지하듯이 메이지시기의 일본은 아시아 혁명자들의 집합지였다. 중국의 반청배만(反淸排滿) 지사들과 무술변법 실패이후의 혁명당인들은 대부분이 모두 일본에서 유망(流亡)한 경험이 있다. 그들은 중국혁명에 대해서 동정하는 일본 민간의 대륙낭인(大陸浪人)과 같은 아시아주의자들과 교류했으며 그들로부터 동아시아 연대를 통해 서구 열강에 저항해야 한다는 일본의 범아시아주의 사상에 영향 입었다.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과 쑨중산(孫中山), 송자오런(宋教仁)과 키타 잇키(北一輝) 등의 친밀한 관계라든지 또는 일본 아시아주의자들의 동맹회(同盟會)와 신해혁명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支持) 등과 같은 역사적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이하에서 필자는 ‘문화적 아시아주의’와 ‘정치적 아시아주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청말(清末)부터 신해혁명 전후에 이르는 기간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아시아주의 또는 동아시아 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쇠퇴해간 궤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신해혁명에서 ‘5.4운동’ 사이에 ‘대아시아주의’의 담론이 재기하게 된 전사(前史)와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제한된 열독 범위 내에서 보자면, 청말 이래 가장 처음으로 ‘아시아의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은 1877년 일본에 파견되었던 외교관 황쑨시엔(黃遵憲)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쑨시엔은 일본이 유구(琉球)지역을 병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보인다. 그는 『일본국지(日本國志)』, 『일본잡사시(日本雜事詩)』에서 일본의 완전히 새롭게 바뀐 풍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청정부도 일본을 따라 변법을 실시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가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시기의 일본은 두 차례 큰 대외전쟁을 발동하기 이전으로 제국주의가 대외적으로 확장되기 이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일의 양국 사이의 역량 또한 근본적인 역전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동아시아 한자유교문명권의 영향력은 여전히 잔존했고 두 나라 민족은 곧 다가올 서구 세력의 동점(東漸)을 직면하고 있었다. 황쑨시엔은 중일 ‘동문동종’에 대한 믿음과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세력균형론을 바탕으로 조선 사절(使節)에 동아시아가 연합하여 러시아의 확장에 대해 저항할 것을 제의하였다. 1880년 9월에 작성한 『조선책략(朝鮮策略)』은 바로 조선의 일본 수신사(修信使) 김홍집(金弘集)에게 보낸 책론(策論)이었다. 여기서 황쑨시엔은 먼저 제정 러시아가 강토를 개척하고 영토를 약탈하는 침략이 상습적이 되었으며, 또한 유럽 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침략 확장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세력을 동아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욕심내고 있는 지역은 반드시 조선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하여 자강을 도모할 것을 건의했다.<sup>6)</sup>

이처럼 황쑨시엔은 아마 중국 근대에서 가장 최초로 ‘아시아 대국(亞細亞大局)’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일 것으로 보아진다. 그는 동아시아 역사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패권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이전 시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유는 여전히 전통적인 한자유교문명권과 19세기 세력균형론의 범주 속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그 동아시아 의식을 ‘문화적’ 또는 ‘정치적’ 아시아주의로서 분별하기는 애매하다. 그러나 그 이후 일본에 망명

6) 中國近代思想家文庫 『黃遵憲』 卷, 北京: 中華書局, 1989. p. 78-85.

했던 Kang유웨이(康有爲)와 량치차오(梁啓超), 그리고 이후의 장타이엔(章太炎)에 이르기까지 영향 받았던 인물들과 같은 경우 그들의 아시아 의식은 문화적 또는 정치적 경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1898년 무술변법(戊戌變法) 이후 일본에 망명한 Kang유웨이는 일본에서 아시아 면로주의를 창도했던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麿)와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오늘날의 동양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동양의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이미 세계의 문제로 되었다. 서구 열강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동양에서 경쟁하고 있다. 동양은 동양인들의 동양이다. 동양인들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동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아메리카의 면로주의 역시 이런 의미이다. 사실상 동양에서 아시아 면로주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는 귀국과 아국의 어깨에 놓여있다.”<sup>7)</sup> 그러나 Kang유웨이의 사상 계보 속에서 ‘아시아 면로주의’에 관한 발언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다소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쉽게 보아낼 수 있는데, 이때의 Kang은 그저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미국의 면로주의를 단순히 지역정치의 관점에서 일본 정치가와의 대담에 끌어왔을지도 모른다. 청말 이래의 대부분의 혁명당인(革命黨人)들과 마찬가지로 Kang유웨이는 결코 ‘주의’라고 할 만한 아시아에 대한 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무술변법 실패 후 일본에 망명했던 량치차오 또한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성공에 대해서 인정하고 영향 받는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중일연합(中日聯合)에 대해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 량치차오는 『청의보서례(清議報叙例)』(1898)에서 ‘울트라 아시아주의(亞粹主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밝혔다. “첫째, 지나(支那)의 정치적 논의(清議)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바른 기개를 격발시킨다. 둘째, 지나인의 학식을 늘인다. 셋째, 중일 양국의 정보를 교류하고 정의(情誼)를 도모한다. 넷째, 동아시아 학술을 발명하여 그로써 ‘아시아 정수(亞粹)’를 보존한다.” 또한 「일본문을 배우는 이점에 대해서 논함(論學日本文之益)」(1898)에서 그는 ‘합방(合邦)’의 이상에 대해서 논하기도 했다. “일본과 아국은 순치(唇齒)의 관계의 형제 나라로써 서로 경계를 두지 말고 협동하고 제휴해야 한다. 이로써 황인종의 독립을 확보하고 서세동점(西勢東漸)을 막아야 한다. 장래에 지나와 일본은 대체로 국교를 맺을 것이며 언어가 서로 통하는 것은 연합의 제일의 조건이다.”<sup>8)</sup> 량치차오는 일본에서 망명하는 기간에 일본의 사회사조에 영향 입었으며 그가 수용한 서구 지식 역시 일본 서적을 통한 것이었다. 그가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두 편의 글에서 량치차오는 중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동아시아의 문명을 구축해나갈 것을 기대하는데, 여기서 그는 완전히 ‘문화적 아시아주의’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중국과 일본이 함께 아시아의 문화정수를 보존하고 발양할 것을 주장한다. ‘합방(合邦)’의 이상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상황에서 인종학과 문명론 관점에서의 ‘협동제휴(協同提携)’를 강조하는 것이며 그 입각점은 여전히 문자언어(文字言語)에 대한 상호 학습에 두고 있었다. 이처럼 청말 이래 이러한 ‘문화적 아시아주의’ 또는 거기서 연유한 ‘동아시아 의식’은 일본으로부터 영향 받았던 중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경향성이었다.

‘苏报案’사건으로 인해 삼 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일본으로 넘어갔던 장타이엔(章太炎)은 1907년 동경에서 장찌이(張繼), 류스페이(劉師培), 쑤만수(蘇曼殊), 타오이에공(陶治公) 등과 함께 ‘아주화친회(亞洲和親會)’를 발기하고 ‘아주친화주의(亞洲親和主義)’를 제창했는데 역시 문화와 종교에 입각한 것이었다. 다만 이 시기의 그는 인접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이

7) 「与康有为的对话笔记」, 『近衛篤麿日記』2, 同刊行會編, 王屏, 『近代日本の亞細亞主義』, 北京: 商务印书馆, 2004.p.94-95 재인용.

8) 량치차오(梁啓超), 『饮冰室合集之四』, 北京: 中华书局, 1989.p.80.

미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사이에 러일전쟁이 발생하고 또한 일본의 대외확장의 민족주의가 고조했던 것, 그리고 '제국주의론'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유행되었던 것과 연관된다. 장타이옌이 직접 기초한 「아주화친회 약장(約章)」은 화두에서부터 반제와 해방의 기치를 내세우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주권을 잃은 아시아의 민족이 각기 독립”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아시아인이라면 침략을 주장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입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sup>9)</sup> 이는 당시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며 그 아시아 상상 또한 일본을 넘어서 중국-인도 양대 문명을 직접 연결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 장타이옌의 주변에는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의 많은 혁명가들이 함께 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서구 열강에 반하고 아시아 해방을 계획(計策)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장타이옌은 량치차오 등과 달리 일본의 확장 행위가 아시아의 안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저우쥬런(周作人)은 “태염(太炎) 선생이 동경에서 망명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글 써달라고 하면 『맹자(孟子) 이루하(離婁下)』에서 “방몽(逢蒙)이 예(羿)에게서 활쏘리를 배워 예(羿)의 기술을 다 배우고 생각하기를 ‘천하에 오직 예(羿)만이 자기보다 낫다’하여 예(羿)를 죽였다”<sup>10)</sup>라는 부분을 늘 적어서 주곤 했는데, 이로써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분개를 드러냈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11)</sup> 1917년에 이르러 장타이옌은 '아주고학회(亞洲古學會)'를 창립했는데, “아시아의 정의(情誼)”를 함께 나누고 “각국의 학식”을 연결하여 아시아 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요컨대, 장타이옌의 '아시아 친화(亞洲親和)'는 일종의 문화, 종교의 공통의 연결과 '상상(想像)'임이 분명하다.

왕후이(汪暉)는 잡지 『동방(東方)』은 창간 당시부터 러일전쟁과 동아시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음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일본의 '대동아(大東亞)'사상과 유럽의 '문명충돌론(文明衝突論)'사이에는 상호 파생의 관계가 존재하며 모두 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905년 이후 황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중일연합의 아시아론은 점차적으로 저조해갔으며,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제국주의의 범주로서 일본을 포함한 패권국가들의 확장을 관찰하는 것이었다.”<sup>12)</sup> 만약 장타이옌의 '아시아 의식'이 이미 일본제국주의에 반하는 내용과 경향을 지닌 것이라면, 신해혁명에서 헌법을 제정했던 핵심인물인 송자오런(宋教仁)은 일본의 정치적 아시아주의에 대해서 보다 첨예한 비판을 가했는데 그것의 근본적 성격변화를 더 잘 드러내보였다고 할 수 있다. 송자오런은 혁명 전 일본에서 약 6년 간 망명한 이력이 있어 일본의 정치문화에 대해서 깊이 요해하고 있었으며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키타 잇키(北一輝) 등과 같이 중국혁명에 대해 동정하는 많은 일본의 아시아주의자(亞洲主義者)들과 교우하였다. 송자오런이 1911년에 작성한 「동아시아 최근 20년의 시국론(東亞最近二十年時局論)」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그가 당시 혁명당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처음으로 일본이 교묘하게 국제법을 이용하여 중국 타이완, 조선 등을 탈취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륙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의 야심을 통찰해 낸 사람임을 보아낼 수 있다. 이 글이 가진 깊은 통찰은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대아시아주의가 중국에는 서로의 의도와는 달리 어긋나게 되었으며, 동아시아 의식 또한 신해혁명을 전후하여 신속히 쇠퇴하게 되었던 궤적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있다.

9) 汤志钧, 『章太炎年谱长编(增订本)』, 北京: 中华书局, 2013.p.141.

10) 성백효 역주,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8년판, p.349.참고

11) 저우쥬런(周作人), 『日本管窺四』, 『知堂乙酉文編』, 石家庄: 河北教育出版社, 2002.

12) 왕후이(汪暉), 『문화와 정치의 변주(文化与政治的变奏)』,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4.p.48.

이 글에서 송자오런은 20년 이래의 시국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먼저 동아시아의 난국의 화근은 일본에 있다고 진단을 내린다. “아아, 바닷길이 열려서부터 동아시아는 소란하고 불안한지 백년이 되었다! …… 동주동종(同洲同種)의 우의를 가장하여 중원(中原)을 삼키려는 의도를 품고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살피고 엿보며 수없이 꾀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실로 동아시아의 화근의 유일한 주된 원인이다.” 일본 역사를 되짚어보면 언제나 동아시아를 삼키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유신(維新)이후 유구(琉球)과 타이완(臺灣)을 취하고 메이지 14년(1882년)부터는 대외로의 발전을 꾀하기 시작했다. 글의 마지막에서 송자오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이) 사방을 둘러보니 유독 나약한 조선(朝鮮)이 있었고 한편 우두머리였던 지나(支那)에는 바로 손을 댈 수는 없어, 먼저 삼한(三韓)을 평정하고 요동(遼東)에 손을 뻗고 나중에는 중국에까지 쳐들어옴으로써 유일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정책을 취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천지(天地)는 안녕할 날이 없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를 병탄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송자오런의 발언은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대륙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의 제2절 부분에서는 갑오 중일전쟁의 기인에 대해서 상술하고 일본이 조선 내부의 동학당운동을 추동함으로써 중국이 출병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을 유도하여 결국에는 중국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없애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합병’을 위해 예비하고자 하는 음모에 대해서 강조했다. 특히 송자오런은 일본이 교묘하게 국제법을 이용하여 조선이 중국의 번속국(藩屬國)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최종적으로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에 주목했다. 또한 서구 열강들로 하여금 중국을 분할하게 한 것 역시도 일본이었다고 지적한다. “대체로 신흥(新興)한 일본은 갑작스럽게 세력이 중국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로써 타국의 질투와 간섭을 초래하게 되었고 혹은 (제국을) 따라서 극동의 대국(大局)을 흔들어놓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일본은 실로 동아시아 평화를 어지럽히는 장본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sup>13)</sup> 즉 일본이 동아시아 정세를 어지럽히는 원흉이며 동시에 그 제국주의 행위로 인해 서구 식민주의자들이 중국을 분할하도록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성찰은 송자오런과 같이 일본과 깊은 연관을 가진 혁명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사상적 깊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일본 민간의 문화적 아시아주의는 이미 정치적 아시아주의 속으로 흡수되어 일본의 ‘대륙정책’과 결합되어 일종의 침략성을 띤 ‘대아시아주의’로 변모하게 된다. 송자오런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첨예한 비판은 정말 이래 중국 혁명당인과 대륙낭인과 같은 일본 아시아주의자들과의 짧았던 연대의 결속을 의미하며 더욱이는 중국인들이 일본판 범아시아주의(泛亞洲主義)에 대해서 믿음과 흥미를 잃어갔음을 상징한다. 물론 1915년 일본정부가 중국에 강권적이고 비합리적인 ‘21개조’를 제출한 이후까지도 혁명의 도략가(韜略家)인 손중산(孫中山)은 일본 정계(政界)와 민간과의 광범위한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본이 중국을 ‘차식민지(次植民地)’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미약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임종 전 그가 고베(神戸)에서 했던 “대아시아주의” 강연은 20세기 초엽 중국인들의 아시아주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중국에서의 일본 ‘대아시아주의’론의 반향 및 관련 논쟁

송자오런이 일본을 비판하는 문장을 발표하고 나서 몇 년 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폭발

13) 中國近代思想家文庫『宋教仁』卷,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4.pp.117-122.

했다. 전 세계 정세는 종전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흥제국 일본으로 하여금 실력을 펼치고 지역 패권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곧이어 모든 세계 강국이 대전에 참여하자 사람들은 ‘文明末日(文明末日)’의 도래를 직감했다. 영국 사학자 홉스봄은 이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914년이라는 분수령 전후의 대조란 그 이전 세대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전쟁이 무너뜨린 것은 ‘19세기 송고하고 위대한 문명빌딩’이었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한차례 유럽 전쟁이었다.” 홉스봄은 또한 이어서 “가장 실질적 요소는 일본이 당시 거의 바로 협약국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은 독일이 원동지역과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위를 대체하기 위해서였으며 그 구역 이외의 사무에는 관심 밖이었다”라고 지적했다.<sup>14)</sup> 일본은 신속하게 참전을 선언하고 이웃 국가인 중국이 유럽전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합리한 ‘21개조’를 제기했는데 이는 앞서 송자오런이 “일본은 실제로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하는 장본인이다”라고 했던 통찰을 실증한 셈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20세기 상반엽 중일외교관계는 점차적으로 위기 상승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아시아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일본이 참전하고 ‘대륙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더불어 중국내 사상여론계에서 한차례 새로운 ‘대아시아주의’와 관련된 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오 중일전쟁 이후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대일본 팽창론』(1894)를 대표로 하는 기세등등한 확장주의의 아시아론과는 달리, 이러한 담론에서는 ‘아시아맹주론’ 또는 ‘일본주의’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은폐되어 있었으며 또한 제1차 세계 대전 폭발이후 크게 재편되었던 세계정치적 질서 및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던 지역주의의 역사적 흐름 속에 전개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현실세계 정치의 진전과 일본의 국가전략의 전개가 직접적 배경이 되었으며 그 이론적 논리의 전개는 주로 세력균형론, 먼로주의, 제국주의론 등을 기초로 하였다. 이러한 전형적인 정치적 아시아주의 담론은 필연적으로 일본제국이 확장을 도모하는 언설과 맞물리게 되었으며 초기 아시아주의가 지니고 있었던 문화적 연대의 요소는 거의 종적을 감추어 버리게 된다. 비교적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는 고데라 겐키치(小寺謙吉)의 『대아시아주의론』(1916)과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의 『신아시아주의』(1918)등이다.

먼저 고데라 겐키치(小寺謙吉)를 보자면, 그는 일찍 미국에 유학하여 예일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하였고 메이지시대 전형적인 “양학신사”로써 이후 정계(政界)에 진출하여 중의원 의원이 되었던 이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1916년 출판된 『대아시아주의론(大亞細亞主義)』(東京: 寶文館)에서는 서구에서의 황화론(黃禍論)을 소개하는데 많은 편곡을 할애하면서 머지않아 인종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하며, 대아시아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나(支那)는 나라가 크지만 무력이 쇠락(衰落)하고, 일본은 무력(武力)이 강대하지만 나라가 작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지나를 돕고 지나를 경제적으로 일본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서로 함께 하여야만 이 동아시아의 쌍둥이는 공존할 수 있다. 오늘날 열강들이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법은 비록 위험성을 갖고 있는 독립 보존의 책략이지만 혹시 앞으로 백인들이 공포, 질투, 그리고 야심으로 인해 필히 일대 큰 풍조(風潮)를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비책략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고로 부득이 대아시아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5)</sup>

14) 霍布斯鲍姆, 『极端的年代: 1914-1991』, 郑明萱 译, 北京: 中信出版社, 2014. pp.27-29.

15) 小寺谦吉, 「大亚细亚主义论」; 藤井昇山, 『孙文研究』, 东京: 劲草书房, 1996. p.215. 재인용.

후지이 쇼조(藤井昇三)에 따르면, 다이쇼시기(1911~1925)에 이르러 정부가 ‘대륙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일본 정계에는 적극적으로 ‘대아시아주의’를 창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데라 겐키치(小寺謙吉)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아시아주의론은 여전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평화론”으로써 백인들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복론”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메이지유신부터 다이쇼시기까지의 대아시아주의 사상은 일본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전환되어갔던 사정과 맞물려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적극적으로 대륙정책을 추진하는 능동적이고 공격성을 띤 아시아주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이쇼 3년(1914)에 다시 부활한 대아시아주의는 피동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띠었는데, 미국이 일본이민에 대해 제한하면서 반미(反美)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아주의가 부활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sup>16)</sup>

한편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는 메이지 말년부터 다이쇼 시기에 활약한 정론가, 사학자였다. 일찍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이후 와세다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고 정치학과 서양사를 가르쳤다. 대중담론 잡지인 『태양(太陽)』의 주필을 맡은 바 있으며 당시 일본의 자유주의파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사학통론(史學通論)』(1898) 강의(講義)는 량치차오의 신사학(新史學)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그의 정론(政論) 저작인 『일본의 제국주의(日本の帝國主義)』, 『윤리제국주의(倫理帝國主義)』 등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를, 대내적으로는 입헌주의를 실행”할 것을 주장했는데 메이지 말기 제국주의론의 형성 과정에서 일본 자유주의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우키타 가즈타미의 ‘윤리제국주의’론은 윤리, 자유, 인격 등 문화 요소를 제국주의의 도덕으로 설정함으로써 이후 후발주자로서 발달 국가인 일본이 패권경쟁에서 발전과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1917년 전후 그는 또한 ‘대아시아주의’의 토론에 참여했는데 그의 「신아시아주의: 동양 먼로주의의 새로운 해석(新亞細亞主義: 東洋モンロ主義の新解釈)」이 잡지 『태양』에 발표되자마자, 잡지 『동방(東方)』(제15권 제11기, 1918년 11월)은 역문을 게재했으며(高勞; 杜亞泉 번역) 그것은 중국 여론계에서 ‘대아시아주의’ 토론을 촉발한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는 아시아주의를 각기 ‘구아시아주의’, ‘신아시아주의’, 그리고 ‘신신아시아주의’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중 이른바 ‘구아시아주의’란 근대 이전 일본, 중국, 조선 등에서 실시했던 ‘쇄국주의’를 지칭하고, ‘신아시아주의’는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다이쇼의 청년과 제국의 전망(大正の青年と帝國の前途)』을 대표로 하는 아시아 먼로주의(곧 일본맹주론으로서의 아시아 먼로주의)를 말한다. 그리고 ‘신신아시아주의’야말로 그의 새로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주장은 일곱 가지 요점을 제기했지만 대체로 다음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시아주의는 아시아의 사무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아시아 인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백인종과 황인종을 막론하고 모두 아시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더 이상 인종역사언어 등의 문명척도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의 지역 개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로써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는 기존의 아시아주의의 적나라한 일본맹주론을 피해갈 수 있었다.

둘째, 아시아주의의 원칙은 “현 상태 유지”에 있지만, 미래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현 상태 유지”란 “서구 세력을 아시아 밖으로 축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일본인이 아시아의 사무를 처리하여 아시아를 아프리카처럼 서구

16) 藤井昇山, 『孫文研究』, 東京: 勁草書房, 1996.p.216.

열강들에 의해 분할되지 않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말하자면, 우키타의 아시아주의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복론”이 아니라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평화론”임을 표명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주의(主義)로써 그것이 최종 목표를 세계평화에 두고 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다만 현재로서는 즉각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은 것이다. 우키타의 “현 상태 유지”에 관한 논술은 리따자오와 같은 중국 지식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키타 역시 제1차 세계대전 결속 후의 세계의 미래가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된 배경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후 세계의 평화 동맹의 결성을 바랬지만, 이와 같은 세계적인 대조직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평화동맹이 결성되기 이전에 유럽-아메리카-아시아 세 대륙에서 부분적인 평화동맹을 조직할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셋째, 러일전쟁 이후 일본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반성과 비판을 가했다. 우키타는 “일본이 동양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대하다”라고 승인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겪은 뒤 일본은 중국에 대해 실시했던 외교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에도 전쟁 이전의 정략(政略)을 답습한다면 역사의 흐름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동양의 보호자로서 일본이 피보호자들에 대해 강경한 담판을 가한다면 실로 자멸의 정책이다 …… 따라서 일본인들은 중국의 급선무에 대함에 있어서 응당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고쳐 중국의 무능함과 무식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양 제국들은 중국을 분할하려는 야심을 포기해야 하며 일본은 마땅히 먼저 중국과 오랫동안 일본 세력 범위 내에 처해있는 작은 정책들을 포기해야 한다. 일본이 취할 대륙정책은 중국 대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개 성(省)이외의 영토 또한 보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동양의 전체 국면(局面)을 향해 있는 것이므로 아시아 먼로주의는 그러한 대의를 위해서 실행되는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상술한 바가 곧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의 ‘대아시아주의’의 주장의 기본 내용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 (근대) 초기의 문화적 아시아주의나 러일전쟁 이후의 일본맹주론 식의 정치적 아시아주의와 비교했을 때, 문명론과 문화적 연대의 국한성에서 이미 벗어나 새로운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제국주의 확장의 경향도 다분히 온화해진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당시의 최선의 세계 조류였던 민족자결과 식민지해방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키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족독립과 각 국가 평등의 원칙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세계혁명 이념의 국제주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다. 비록 우키타는 일본이 추진해온 ‘대륙정책’에 대해서 다소 반성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적 입장에서 이론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우키타의 관점은 논조가 온화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러일전쟁 이후 ‘대륙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일본 대아시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제국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혁명에서 영향 받고 또한 피압박민족의 지위에 처해있던 중국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유달리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으며 리따자오의 말을 그대로 빌자면 그 자체로 일종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이 중국에서 소개되고 나서 중국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타났다. 예컨대 반년 뒤에 『동방잡지(東方雜誌)』 제16권 제5기에 고희위안(高元)이라는 필명으로 『아시아주의를 책망하다(咄咄亞細亞主義)』 라는 제목의 글이 발표되었는데 힐난의 논조가 다분했다. 또한 1919년 리따자오가 발표한 『대아시아주의와 신아시아주의(大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sup>17)</sup> 역시 직접적

으로 도쿠토미 소호(德富苏峰), 고데라 겐키치(小寺谦吉),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 등의 관점에 대해서 직접 다룬 것이었다. 같은 해 『법정학보(法政學報)』 제10기에는 보다 쟁론적인 글이 등장했으며, 여기에 대해 리따자오가 『신아시아주의를 재론하다: 꼬우청위안군(高承元)군에게 답함』<sup>18)</sup>이라는 글로써 답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5.4’운동 전후로 ‘대아시아주의(大亞細亞主義)’에 관한 담론의 장이 이미 형성되어 어느 정도의 열조를 띠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담론의 장은 1916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고데라 겐키치(小寺谦吉)가 『대아시아주의론(大亞細亞主義論)』을 출판했던 시점과 맞물린다. 같은 해 장시천(章錫琛)은 『대아시아주의의 운명(大亞細亞主義之運命)』<sup>19)</sup>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고데라 겐키치의 이론이 가지는 공허한 구호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16년부터 1919년 기간은 마침 유럽에서 전란이 이어지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세계대전으로 인한 세계 구조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을 두고 『동방잡지(東方雜誌)』, 『신청년(新青年)』과 같은 중국 여론계에서는 일련의 토론 열조가 일어났다. 이 역시 사람들이 ‘대아시아주의’에 주목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세계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장시천(章錫琛)은 「유럽과 아시아의 미래의 대전쟁(歐亞兩洲未來之大戰爭)」<sup>20)</sup>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태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내부 전쟁에 빠져있다. 그러나 유럽전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교전국들 사이에서 화약(和約)이 결성되었다. 동아시아 제국은 연합하여 제국주의 연맹을 결성하여 강국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황인종과 백인종이라는 두 가지 대표문명이 이 시기에 와서 반드시 큰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유럽의 기계문명을 수중에 넣었는 바 정적(靜的)의 문명인 중국과 연합한다면 반드시 서구에 대해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당시 유행된 지도 이십년 남짓된 ‘황화론(黃禍論)’의 영향이 보여지며 또한 동서문명충돌론의 논조를 띠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류원디안(劉文典; 叔雅)은 같은 해 「유럽전쟁과 청년들의 각성(歐洲戰爭與青年之覺醒)」(『新青年』 2권 2호)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의 관점에서 유럽전쟁은 “평화란 헛소리이고, 강권은 곧 정의이며, 황백인종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따라서 중국 청년들은 동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각하고 서구의 황화론(黃禍論)에 대항하여 중국을 맹주로 하는 아시아주의를 주장했다.

유럽전쟁이 결속될 시점을 즈음하여 이 논의는 중국 여론계에서 현실적인 담론으로써 보다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예컨대, 『동방(東方)』 제16권 제1호(1919년 1월)에는 루어루어(羅羅)이라는 필자가 미국 『아시아잡지(亞細亞雜誌)』에 실렸던 「세계의 삼대 세력(世界之三大勢力)」이라는 글을 편역(編譯)하여 실었다. 이 글에서는 유럽 전쟁 이후 “세계의 국제 세력은 반드시 통합으로 나아가” “삼대 계통(三大系統)”을 이룰 것이며 그것들은 각기 앵글로색슨 계통(대영제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슬라브계통(러시아와 동종의 작은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계통(중국과 일본)으로써, 말하자면 세계의 세력은 대체로 삼분할 하게 된다는

17) 리따자오, 『대아시아주의와 신아시아주의(大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 『國民』, 1919년 2월 1일 1권 2호.

18) 리따자오, 『신아시아주의를 재론하다: 꼬우청위안 군(高承元)군에게 답함(再論新亞細亞主義——答高承元君)』, 『國民』, 1919년 11월 1일 2권 1호.

19) 章錫琛, 『대아시아주의의 운명(大亞細亞主義之運命)』, 『東方』 13권 5호, 1916. 5.

20) 章錫琛, 『유럽과 아시아의 미래의 대전쟁(歐亞兩洲未來之大戰爭)』, 『東方』 13권 1호, 1916. 1. (이 역문은 은 독일 台利史의 글을 저본으로 했다.)

논지를 드러냈다. 같은 호 『동방』에는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먼로주의(澳洲之孟祿主義)」라는 제목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상(首相)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Hughes)와 뉴질랜드 수상 윌리엄 메시(William Ferguson Massey)의 먼로주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요컨대, 1919년 전후 중국의 사상여론계에서는 세계의 미래전망에 대한 토론이 한창 성행했으며 대아시아주의에 대한 담론 역시도 이러한 여론 배경 하에서 산생된 것이었다.

다시 고투위안(高元)의 『아시아주의를 책망하다(啾啾亞細亞主義)』으로 돌아와보면, 고투위안(高元)의 기본적인 판단은 “아시아주의는 곧 아시아 먼로주의”라는 것이었다. 고투위안은 리따자오의 「Pan……의 실패와 Democracy의 승리」(1918)라는 글에서의 관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즉 먼로주의는 그 자체로써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잠정적으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력을 확장하지 않는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보수적인 태도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영구적이 아니다. 어느 날 돌변하면 그것은 곧 ‘대……주의(大……主義)’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분석에 근거하면 고투위안(高元)은 목전 일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아시아 먼로주의(亞細亞孟祿主義)’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은 각기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와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의를 대표로 하는 것이다. 이 둘은 모두 “아시아의 사무는 반드시 아시아인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점이라면 그들이 “일본인이 아시아를 대표하여 아시아를 일본만의 세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이처럼 먼로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 고투위안(高元)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아시아주의자는 일본의 독선적인 간섭주의이다. 아시아 먼로주의자는 일본이 아시아 밖에 힘을 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자칭하지만 사실상 정책에 있어서의 독단일 뿐이다. 만약 언젠가 그 힘이 아시아 밖에도 미치게 된다면 점차 그 가면을 벗고 침략의 방책을 세울 것이다. 이는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씨가 언급했던 현 상황의 변화의 가능성이다.” 따라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문한다. “그러한 상황은 동아시아의 독립국가로서의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또한 일본의 이러한 강권적 횡행을 참지 못할 것인 아닌가?”

이 글은 첨예하고 예리한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20년대의 짧은 “협조외교(協調外交)”를 거친 후 1931년 ‘9.18’사건을 일으키고 결국 중일전쟁 내지 태평양전쟁을 발동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대아시아주의는 중국적으로 침략확장이라는 심연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 여론계에서 나타났던 ‘대아시아주의’와 관련된 담론 중 가령 고투위안(高元)의 관점은 여전히 전통적인 세력균형론(均勢論), 지역연합 내지 일반적 의미에서의 제국주의 비판의 범위 내에 머물렀을 뿐 진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 사상, 세계혁명의 이념과 민족자결의 정신을 담론 속에 끌어오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정면으로 건설적인 ‘신아시아주의’의 주장을 내세웠던 사람은 ‘5.4’신문화운동에서의 가장 뛰어난 사상가였던 리따자오였는데, 그는 일본제국주의 식의 ‘대아시아주의’가 중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역사와 윤리적 논리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사회혁명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여 세계연방을 고매한 이상으로 삼아 그의 ‘신아시아주의’의 위에 자리매김 시키고 이로써 일본 아시아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것이 곧 중국에서의 ‘대아시아주의’관련 담론 중의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 4. 리따자오의 세계주의적 시야(視野)에서의 신아시아주의

사실 리따자오는 꽤 오랫동안 일본과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아 왔는데, 특히 1913년부터 1916년 사이에 일본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를 통해 마르크스 사상을 접했으며 이후 중국에서는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기반을 닦아놓게 된다. 또한 일본의 '21개조'의 제출, 위안스카이의 복벽과 반위안스카이 운동(反袁运动) 등의 상황을 조우함으로써 일본 내지 중일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주목해왔다. 재일중국인 유학생회가 일본과 중국정부가 '21개조'를 두고 어떤 비밀교섭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따자오는 총회를 대표하는 격문 「전 국민에 고함(敬告全国父老书)」(1915)를 발표하여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독일 신민지 교주(胶州)를 쟁탈하는 각종 음모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일본학자 요시히로 이시카와(石川禎浩)에 따르면, 청년시절 리따자오는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많은 일문서적과 잡지들을 열독했는데, 특히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리따자오는 비록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했지만 일본과의 교류 자체를 거부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다이쇼기의 자유주의 사상가 요시노 사쿠조오(吉野作造)가 '여명회(黎明會)'를 조직할 때 리따자오는 성원(聲援)을 보냈으며 '5.4'운동으로 인해 배일(排日) 감정이 고조되어 중일관계에 영향 주었을 때에도 그는 요시노 사쿠조오(吉野作造)와 함께 중국고 일본 학생들의 교류에 앞장 선 바 있었다.<sup>21)</sup>

리따자오는 「전 국민에 고함(敬告全国父老书)」라는 글에서 당시 열강들이 국제에서 유행하던 세력균형론(均勢論)에서 착수하여 중국을 분할하고 사욕을 채우고 세력 범위를 나누는 수법이 중국으로 하여금 당장 망국의 위기에 처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분할이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갑오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전하여 “우리나라 요동반도를 요구하고 외교에서 비리를 행하고 연합과 분규가 횡행하게 하는”, 이른바 '세력범위'란 열강들이 분할 과정에서 분쟁을 피면하기 위해 획정한 계선이었으며, 미국 또한 1900년에 “문화개방, 기회균등”을 제기하며 “이익 균등”을 도모하는 균등주의를 내세웠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리따자오는 “중국을 장래에 망하게 하려는 자는 세력균형론을 고려하며, 중국이 망하는 것을 미루고자 하는 자도 세력균형론에 근거하며, 중국을 망하도록 압박하는 자 또한 세력균형론에 기대다”라고 예리한 지적을 한다. 즉 이러한 세력 균형 제도(均勢制) 하에서는 중국이 잠시나마 숨 돌릴 기회를 얻었다고 할지언정 어떠한 반항이 없으면 미구에 망국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시국을 둘러보고 나아가 중동 지역이 식민화되어버린 상황을 목도하고 하고나서 그는 중화민국의 기초가 안정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국민들은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마음가짐으로 열강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비밀리에 중국에 '21개조'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일본이 중국 전체에 대해서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요컨대, 송자오런(宋教仁)과 마찬가지로 리따자오 역시 가장 일찍 일본 제국주의의가 중국을 정복하고자 한 야심을 눈치 챘다고 할 수 있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정부가 민의를 따르고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당시의 리따자오의 주권재민의 민족국가의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

21) 石川禎浩, 「리따자오: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의 아버지(李大钊: 中国马克思主义教父)」 赵景达 编, 『东亚的知识人(卷三)』, 东京: 有志舎, 2013年, p.25.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아국의 존망의 계책에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적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할 것을 명할 실권이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뜻에 따를 것을 독려하여 최후의 결책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것이다.” 반년 뒤 그는 또한 「국민의 와신상담(國民之薪膽)」이라는 글에서 ‘21개조’의 출범 과정 중 관건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부흥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고 국가의 독립을 훼손함으로써 영원히 중국이 자체적으로 존립하고 실력이 강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를 밝히고 국민들은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백절불굴의 기개를 갖고 뉘도록 경각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1918년 전후에 이르러 리따자오는 당시 국제관계이론에서 유행하던 세력균형론의 한계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마르크스 무산계급혁명과 트로츠키 세계혁명의 입장에 입각하여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이론적 비판을 가하며 자신의 ‘신아시아주의’의 이념을 제기하게 된다. 그의 「Pan……ism의 실패와 Democracy의 승리」(1918.7.), 「서민의 승리」(1918.1.), 「Bolshevism의 승리」(1918.12) 등 글에서 보여지듯이 그는 점차 급진적으로 나아갔는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 「대아시아주의와 신아시아주의」이라는 글의 깊은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리따자오는 첫 번째 글에서 승리란 여러 가지 ‘대……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민주와 해방의 식으로써 다양한 일국을 주체로 하는 국군주의 내지 자본가계급을 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민주와 민족해방이 ‘대아시아주의’가 세계의 새로운 흐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글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리따자오의 세계주의 시야(視野)를 드러냈는데 그것은 공리(公理)가 강권을, 민주가 전제를, 세계서민(世界庶民)이 군국주의를 전승한다는 주장이었다. 세 번째 글에서는 더 나아가 ‘혁명적 사회주의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통해 민족국가의 한계를 진정으로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볼셰비키전쟁은 계급전쟁이며 그것은 “세계 무산 서민들과 세계 자본가들과의 전쟁”이라고 성격을 밝힌다. 여기서 리따자오 사상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 청사진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자유향(自由郷) - 유럽연방민주국가 - 세계연방”이라는 다원적으로 점진하는 3단계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가 「대아시아주의와 신아시아주의」에서 제기한 구상은 이러한 구조 속에 위치시키면 “각 민족의 독립해방 - 아시아연합 - 세계조직(연방)”이 된다. 이는 의심할 나위없이 심원한 세계주의 이념에 기초한 신아시아주의으로써 량치차오, 쟡타이엔 등의 문화적 아시아주의나 동맹회 이래 혁명당인들 가운데서 은연히 잔존해온 아시아 의식, 즉 민족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치적 아시아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로써 리따자오는 「대아시아주의와 신아시아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데라 겐키치(小寺謙吉)와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대아시아주의에 대해서 첨예한 비판을 가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 의해서 주장된 바가 평화가 아닌 침략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는 다른 지면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것은 ‘5.4’시기 일반적으로 중국 지식인 계층이 일본에 대한 보편적이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동아시아 인식’과는 구별되는 근본적인 전변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리따자오가 이 시기에 제기한 ‘신아시아주의’관은 일본의 그것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진 세계혁명의 시야, 민족자결 및 해방의 원칙과 세계연방의 이상은 이미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의 여러 가지 아시아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sup>22)</sup> 가령 리따자오는 다

22) 쩌우징화(赵京华), 「동아시아의 역사적 격변 속에서 루쉰의 전통을 재고하다(在东亚历史巨变中重估鲁迅传统)」, 『学术月刊』, 2015年第1期

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세계의 큰 흐름을 보면 아메리카(美洲)는 아메리카연방으로, 유럽은 유럽연방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아시아도 이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두 세계연방의 기초이다. 아시아인들은 함께 신아시아주의를 창도함으로써 일본에서 일부 사람들이 제창하는 ‘대아시아주의’를 대신해야 한다. 이러한 신아시아주의는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가 말한 것과는 다르다.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는 중국과 일본 연맹을 기초로 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민족해방을 기초로 하는 근본적 개조를 주장한다. 무릇 아시아에서 민족과 침점 당한 지역은 모두 해방되어야 하며, 민족자결주의를 실행하고 대연합을 이루어 유럽과 아메리카 연과 세력이 균등하게 정립하여, 함께 세계적 연방을 완수하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sup>23)</sup>

그런데 이른바 리따자오의 ‘신아시아주의’는 월슨의 “14개조 평화원칙”<sup>24)</sup>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며 레닌의 “민족자결”이론과도 일치하다. 신해혁명이후 레닌은 ‘아시아의 각성’을 예시하는데 열중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자본주의와 1905년의 러시아혁명은 철저히 아시아를 깨웠다. 중세기의 정체상태 속에서 압박 받고 깊이 잠들어있던 수억 명의 인민들은 각성하여 그들의 새로운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중략…) 아시아의 각성과 유럽의 선진적인 무산계급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전개는 20세기 초엽이 열어놓은 전 세계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상징한다.”<sup>25)</sup> 이러한 아시아 각성의 세계사적 배경은 곧 민족해방과 사회혁명이라는 격량의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것이었는데, 이는 모든 사상과 주의에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 민주정신과 세계주의는 ‘신아시아주의’의 근본 목표와 내재적 논리의 귀결이었다. 이는 리따자오와 일본 ‘대아시아주의’ 가장 큰 구별점인 동시에 19세기 이래의 세력균형론과 지역연합의 ‘범……주의’의 논리적 틀과도 분명히 다른 것으로서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 민족국가 내지 지역 범위를 초월한 하나의 심원하고도 완전히 새로운 이념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20세기의 중국에서 있었던 아시아 담론의 역사 속에서 특수한 지위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리따자오의 신아시아관을 보다 깊이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일부 의견에 대한 답글인 「신아시아주의를 재론한다: 고퉐청위안 군에게 답함(再论新亚细亚主义: 答高承元君)」이라는 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리따자오의 글이 발표되고 나서 고퉐청위안(高承元)이라는 자로부터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인즉 왜 세계 각 민족들이 직접 연합할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세계적 연방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주(洲)의 작은 연합을 기초로 할 것을 주장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그 질의는 세계대동(世界大同)을 실현하는 점진적 삼단계 구조인 “민족해방, 아시아연합, 세계연방”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고퉐청위안(高承元)과 리따자오 모두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혁명이 야기해낸 세계혁명이라는 거대한 사상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프롤레타리아 또는 각 민족들을 연합하여 직접 세계대동에 도달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리따자오는 여덟

23) 『中国近代思想家文库 李大钊卷』, 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pp.237.

24) 월슨은 1918년 1월 8일 국회에서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식민지의 요구에 대해서 자유롭고 솔직하고 절대적으로 공정한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주권문제를 다룰 때 주민들의 이익은 반드시 식민지 관리권이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 요구와 동등하게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齐世荣主编, 『世界通史资料选集·现代部分(第一分册)』, 北京:商务印书馆, 1988.pp.30-11.)

25) 『列宁选集(2)』, 北京:人民出版社, 1972. pp.447-448.

가지 측면에서 질의자의 의심과 우려에 대해서 답했는데 그중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이 그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셋째, 내가 주장하는 신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항하기 위함이며, 서구인들이 그들의 세력으로 아시아민족에 대해 압박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 대아시아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신아시아주의의 기치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민족해방운동은 첫걸음으로써, 그것은 대내적인 것이며 대외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또한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항하는 것이며, 유럽과 아메리카의 배아시아주의(排亞主義)가 아니다……이 책임은 중국인과 조선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성한 일본인을 포함하여 무릇 아시아인이란 함께 져야 할 책임인 것이다.

넷째, 나의 신아시아주의는 “친소(親疏)의 구별이 있는 아시아주의”가 아니라, “세계적 조직에 적응하여 세계연합을 이루는 일부로서의 아시아주의”이다. 이는 또한 세계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에 순응하는 것이다……강권은 우리의 적이며 공리(公理)는 우리의 벗이다. 아시아는 우리가 세계를 개조함에 있어서 선행하여 착수하는 일부이며, 아시아인들이 독점하는 무대가 아니다. (……)

다섯째, 나의 아시아주의는 ‘자치주의(自治主義)’이다. 그것은 지역과 민족을 모두 민주(民主)적, 조직적으로 만드는 주의이며, ‘배외주의(排外主義)’ 또는 ‘폐쇄주의(閉鎖主義)’가 아니다. 우리는 최선(最善)의 세계조직이라면 자치적이고, 민주적이며,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마지 않는다. 무릇 서구의 인민들은 아시아 경내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공존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sup>26)</sup>

요컨대, 아시아 해방운동은 첫걸음이고 세계연합은 최종목표라는 것, 민주화와 개성에 대한 존중이 근본적인 원칙과 목표라는 것이 곧 리따자오가 ‘신아시아주의’의 주장에 부여한 근본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이미 19세기 이래 국제관계에서의 세력균형론 내지 일반적 의미에서의 제국주의론에서 벗어났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19세기 국제관계이론과 지역연합을 지배한 것은 유럽에서 발원한 세력균형론이었다. 세력균형론은 기하학의 평행개념을 빌려 복수의 패권들 사이에서 상호 제어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건립하고자 시도했다. 그것의 주요기능은 어떤 한 국가가 세계적인 패권을 확립하는 것을 막고 그림을 통해 세계체계의 국부적인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칼 폴라니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균형제도는 국제정치 속에서 실질적 작용을 하지 못했다. 폴라니에 의하면,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던 것에 반해 “19세기 서구문명사에서 전대미문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1815년부터 1914년 사이에 있었던 백년의 평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적은 국제금본위제도(國制金本位制度)에서의 세력균형 제도(均勢制)의 운동에 공로를 돌려져야 한다. 또한 “19세기의 세력균형의 결과적으로 국제정치 속에서 실질적 작용을 하지 못했다. 본래 세력 균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란 그 균형에 참여하는 권력 단위들의 생존이었으며, 이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사실 세력 균형이라는 것은 권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단위가 셋 이상이라면 항상 가장 강한 쪽을 놓고서 약한 쪽들이 서로 힘을 합쳐 맞서는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공리에 불과하다. 보편사의 시야에서 본다면, 세력 균형이란 국가들이 그것을 방편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문제였을 뿐이다. 그런데 세력 균형에서 그 독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참여하는 나라들이 계속 짝을 바꾸어가면서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뿐이었다.”<sup>27)</sup> 그러나

26) 『中国近代思想家文库 李大钊卷』, 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pp.290-291.

27) 폴라니, 『巨變——当代政治与经济的起源』, 黄树民译, 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 pp.54-56.;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와 세계혁명이 이미 나타난 20세기 초엽에 이르면 이러한 세력 균형 제도(均勢制)는 1차 세계대전 속에서 효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세계의 미래와 발전 추세에 대해 새롭게 사고하고 세계를 새롭게 구상할 때 새로운 이론과 논리적 출발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리따자오는 일찍 1915년 「전 국민에 고함(敬告全國父老書)」에서부터 세력균형론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품고 있었으며 또한 ‘신아시아주의’론에서는 민족해방, 세계주의와 민주정신의 핵심 내용을 제기했다. 이는 민족국가를 경계로 하는 19세기 지역주의 사유인 세력균형론을 타파하고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적인 연원인 일본맹주론에서 벗어난 것인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그의 아시아주의에 대해서 높이 사야 하는 주요원인이다.

리따자오의 ‘신아시아주의’는 그 사유방식에 있어서 포용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의 이원대립의 사고 속에는 하나의(또는 몇 개의) ‘중간항’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원대립과 타자(他者)를 지워버리고 마는 단순 착오를 피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5.4’ 신문화인들이 일반적으로 경도되어 있었던 직접적이고 대립적인 이원론적 사고인 동양-서구, 중국-세계, 본토-외부, 전통-현대, 빛-어둠 등 사고의 자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신아시아주의’의 핵심에 자리매김 시킴으로써 리따자오는 다원적이고도 복잡한 사유의 틀을 확립할 수 있었다. 가령 민족해방, 아시아 연합, 세계연방이라는 세 단계 점진적 사회혁명의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고퉄청위안(高承元)의 「‘친소(親疏)의 구별이 있는 아시아주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리따자오는 우리가 일본의 대아시아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일본에서 연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아시아인을 핍박하는 아시아인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아시아인을 핍박하는 비아시아인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비아시아인을 압박하는 비아시아인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비아시아인에 대해서 압박하는 아시아인 역시 반대한다”라고 답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요컨대, ‘아시아민족’을 해방하는 책임은 “중국인, 조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릇 아시아인이라면, 즉 각성된 일본인까지도 져야 할 몫”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리따자오는 중국적으로 큰 포용성을 가진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의 원어를 빌리자면, “세계의 어떤 종족과 국민을 막론하고 만약 인류 동포의 지위에 입각하여 진정한 Democracy의 정신으로써 공리(公理)를 받들고 강권적인 사람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그를 가장 친근한 형제로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기탄없이 그와 함께 노력하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거리감 없고 ‘친소(親疏) 구분이 없는 세계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곧 내가 주장하는 신아시아주의의 정신이다.”

## 5. 결론: 중국에서의 아시아의식의 쇠퇴 및 계시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신해혁명에서 ‘5.4’운동 시기에 있었던 ‘대아시아주의’담론의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고 또한 근대이래 중국인들의 아시아주의 또는 동아시아 의식의 발전과정 및 쇠퇴의 역사궤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리따자오의 신아시아주의는 아시아 협력에 있어서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과 중국 양국이 근대이래 나타났던 다양한 아시아주의의 범주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제국주의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력을 담지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가 지역협력의 문제에 대해서 사고함에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09. pp.98-99. 참고

있어서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다만 '5.4'이후 중국의 지식계에서 그러한 신아시아주의 담론을 심화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존재했던 동아시아 의식마저 서서히 쇠퇴해가던 사정은 더없이 유감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근본원인은 신제국주의의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동아시아 연대의 대아시아주의를 창도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서구 전형적 제국주의의 식민 확장의 논리를 추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타이완, 조선반도에서 식민통치를 실시하고 또한 중국 대륙에까지 손을 뻗도록 만들었다는 것에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내부의 불평등한 관계구조를 조성했으며, 따라서 중국인들은 리따자오가 제기한 '아시아연맹'에 대해서 기대를 둘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일본의 문화적 아시아주의는 초반에는 대체로 문명론과 지역연대 감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사조였지만 후기로 갈수록 제국주의 식민 확장의 논리인 정치적 아시아주의로 전변되었는데 이것이 사회혁명 단계에 진입했던 20세기 초반의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감흥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또한 20세기 초반의 중국에서 아시아주의 혹은 동아시아 의식이 급속히 쇠퇴했던 사정은 중국근현대사상에서의 지역주의 개념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또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참조할 만한 동아시아 사상자원이 양산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학술적 측면에서 관련 연구가 일본이나 한국 등 지역에 비해서 미비하고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문화 및 현실생활과 관련된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모두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 혹자는 『신청년(新青年)』은 『갑인(甲寅)』과 같은 청나라 말 민국 초엽의 잡지와는 달리 구체적인 논쟁과 정치적 문제에 대해 연연하기 보다는 “복잡한 정치적 현상을 통해 당시의 중국의 총체적인 구조와 시대적 정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었다”<sup>28)</sup>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총체성(總體性)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이해를 전체로 각각의 사회문제들을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에서 체현된다. 필자가 보았을 때, 이러한 총체성에 대한 추구는 '5.4'세대 지식인들이 이원대립의 관계 구조 속에서 세계의 큰 흐름을 관찰하고 문화 전반에 대한 해결을 사유하는 방식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후 중국의 사상계 및 학술계에 깊고도 넓은 영향을 미쳤는데 신과 구, 동양과 서구, 전통과 현대, 중국 해방과 세계 혁명 등 중국인들의 관념 속에는 언제나 '제3의 축'이 결여되어 있다. 세계구조와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지역의 이원대립의 사유구조를 돌파할 수 있는 '제3항'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현대 학과 건설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학' 연구가 서구에서는 매우 발전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예컨대 유럽의 오리엔탈학, 아프리카학 등을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지학과 같은 것들이다. 전전(戰前)의 일본의 대학들에서는 식민지정책학이 생겨나 점차 단독학과로 발전하였으며 전후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연구'로 바뀌어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는 당연히 제국주의 식민 확장의 정치적 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문제는 근대이래 국력이 쇠약하여 근대화 여정이 험난했다는 점에 더불어 신구 제국주의 세력의 위협과 간섭으로 인해 '외부세계' 특히 주변 지역에 대해 사고할 여건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5.4'이래 중국과 세계, 동양과 서구, 전통과 현대 등 이원구조 속에서 문제를 사고하는 관습은 우리로 하여금 학과건설에 있어서 '지역연구'의 부분이 박약하도록 만들었다. '5.4' 전후 아시아주의 혹은 동아시아 의식의 쇠퇴는 이러한 관습적 사고방식의 특징을

28) 张春田, 「“有以自觉而奋斗：《新青年》的取态”」, 『讀書』, 2015.第8期.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중국은 국력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에 참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 특히 지역연구에 깊이 집념해야 할 시기에 처해있다고 보아진다. 지난 백여 년 전 중국의 문화사상계에서 있었던 ‘대아시아주의’ 담론을 살펴보고 아울러 중국인들의 동아시아 의식의 쇠퇴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이로써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신해혁명으로부터 ‘5.4’운동 시기의 중국 사상사 속에서의 동아시아 시야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부언을 곁들이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의 패권세계의 각도에서 ‘5.4’이래 중국의 근대화 역사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중시해온 것에 비해 일본 학자들은 ‘동아시아 시각’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 시기의 일본에서는 ‘다이쇼 민본주의’가, 조선반도에서는 ‘3.1’운동이 있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지식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폭발한 이후 있었던 세계혁명의 전 지구적 흐름을 공유했으며 동시에 이는 각 지역에서 서로 공명을 일으켰다. 중국의 ‘5.4’운동과 한국의 ‘3.1’운동의 주체는 대체로 재일본 유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일본의 다이쇼 민주주의 시대의 사회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개조’사상은 사회주의, 아나키즘 사상과 관련되어 있었고 민본(民本), 민주(民主)의 사상은 세 나라에서 공통의 주류를 차지했다.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이후 독자적인 근대화 여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5.4’시기 아시아주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흔히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지역에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사실 19세기 국제관계이론에서의 세력균형론의 폐단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사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근현대사상발전의 역사 흐름에서 동아시아 지역, 특히 일본적 요소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의 의미에서 모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근대 이래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역사의 대변화는 모두 외부 세력에 대해 거부하고 민족국가 및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속에서 각 민족들은 상호 침투하고 함께 흔들리고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관계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근대화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동아시아 동시대사(同時代史)적인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가 역사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칼 폴라니(波兰尼), 『거대한 전환(巨變—当代政治与经济的起源)』, 黄树民译,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
- 홉스봄(霍布斯鲍姆), 『극단의 시대:1914-1991(极端的年代:1914-1991)』, 郑明萱译, 北京: 中信出版社, 2014.
- 『레닌선집(列宁选集)(2)』, 北京: 人民出版社, 1972.
- 량치차오(梁启超), 『饮冰室合集之四』, 北京: 中华书局, 1989.
- 齐世荣主编, 『世界通史资料选集·现代部分(第一分册)』, 北京: 商务印书馆, 1988.
- 石川桢浩, 「李大钊: 中国马克思主义教父」 赵景达编, 『东亚的知识人(卷三)』, 东京: 有志舍, 2013.
- 汤志钧, 『章太炎年谱长编(增订本)』, 北京: 中华书局, 2013.
- 藤井昇山, 『孙文研究』, 东京: 劲草书房, 1996.
- 王屏, 『近代日本の亞細亞主義』, 北京: 商务印书馆, 2004.
- 왕후이(汪晖), 『문화와 정치의 변주(文化与政治的变奏)』,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4.
- 中下邦彦编, 『아시아사전(亞細亞事典)』, 東京: 平凡社, 1959-1962.
- 『中国近代思想家文库 李大钊卷』,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 『中国近代思想家文库 李大钊卷』,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 中國近代思想家文庫 『宋教仁』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
- 中國近代思想家文庫 『黃遵憲』卷, 北京: 中華書局, 1989.
- 张春田, 「“有以自觉而奋斗”: 『新青年』的取态」, 『读书』, 2015年 第8期
- 赵京华, 「在东亚历史巨变中重估鲁迅传统」, 『学术月刊』, 2015年第1期
- 赵景达编, 『东亚的知识人(卷三)』, 东京: 有志舍, 2013.
-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일본의 아시아주의(日本の亞洲主義)」, 『日本与亚洲』, 東京: 築摩書房, 1963.
- 저우쥘런(周作人), 『日本管窺四』, 『知堂乙酉文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